

세상 바꾸려거든 나부터 바꾸자



신춘 월로대담

이원섭 시인

대담: 위영란 편집부국장

40여년간 선(禪)의 세계를 탐구하고 그것을 우리말로 옮기는 일에 매진해 온 이원섭(81) 시인. 제법 서늘한 겨울비가 내리던 1월 18일, 본사를 찾은 이원섭 시인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들었다.

▲ 이렇게 저희 신문사로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만큼 건강이 좋아 보이십니다.

- 겉으로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속으로는 바람이 빠져나갔죠(웃음) 노쇠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 불교와의 첫 인연이 궁금합니다.

- 집안이 불교 집안은 아니었지만 원래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교회엔 안나갔지만 성경도 읽어봤고 불경도 좀 읽었어요. 이광수의 소설이 불교적 색채가 강해서 그 영향도 많이 받았지요. 대학을 가게 되었을 땐 일제의 학교교육이 너무 군국주의적이라 성미에 맞지 않아 해화전문을 택했어요. 당시 해화전문에는 조지훈, 김달진, 서경주, 신석정 등 쟁쟁한 문인들이 많아 한국문학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끌렸습니까.

▲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화두를 연구해오셨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탐닉'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화두가 있습니까.

-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화두는 없어요. 화두는 표현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입니다. 어떻게 무명과 분별을 깨느냐는 거죠. 표현은 달라도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두는 원래 풀이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화두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확문제는 지적 분별력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공안은 분별을 넘어선 세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언어를 초월한 세계이지요. <주주목>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래요. 조사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한 답이 15개나 됩니다. 그때마다 답이 달랐어요. 대답이란 것은 묻는 사람이 분별을 어떻게 깨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가는 것이죠. 정답이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만 있을 뿐이지, 분별로 접근할 수 없어요.

▲ 오늘날 우리 사회의 치유책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 그렇죠. 요즘 과학으로 우주의 기원을 찾는다 하는데, 이걸 답이 없는 거예요. 관심 돌려서 지금, 우리의 생활이 어떤 모양으로 이뤄져 있는 것인가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 상태를 살피면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길을 찾으신 겁니다.

또한 요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편으로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개혁과 보수는 처음부터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른팔이 있으면 왼팔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서로 어디를 강조하는가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니 공격해질 수밖에요.

▲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문제 치유의 처방이 있고, 우리 불자들이 그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음 살피 열반의 길 찾은 부처님처럼

지금 우리 생활 어떻게 이뤄지나 탐구해야

- 각자가 자기 자신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세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부작이 따르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은 스스로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모델을 간디에게서 찾았습니다. 간디는 자신을 억압한 영국마저 사랑하며 무저항주의를 펼쳤습니다. 오늘날에는 간디의 사상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선생님의 삶의 궤적은 불교와 시의 두 줄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선시(禪詩)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실 '선(禪)'이라는 것은 교(敎)까지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걸 글로 쓴다는 것은 자기모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가 언어이면서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듯, 선도 실재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경지를 시의 형식으로 노래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사와는 다르죠. 재주만 있어서는 선시를 쓸 수도, 접근할 수도 없어요. 어느 경지를 느끼고 나서 자신의 일로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선시라고 생각합니다. 선에서 얻은 깨달음이 나타나 있지 않으면 선시가 아닙니다.

▲ 불자들 중에는 '불립문자'나 '교외별전'이니 해서 책 읽는 것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 책을 잘 읽지 않는 분

들도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 '불립문자' 아닌 불경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이 '문자에 매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부처님은 분별을 넘어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자들은 책을 읽고 책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책을 읽지 않고 믿는다면 도대체 그 믿음은 뭘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불자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넘어서야 합니다.

▲ 지식정보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속도와 경쟁이 생겼고 무기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다보니 반대급부로 '느림의 미학'이나 '여유' '귀농'과 같은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부상하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남이 뛰니 나도 뛰는 의식이 문제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남이 뛰는 걸 보고 자신도 뛰니까요. 이럴 때 일수록 인간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뛰는 이유가 뭘냐, 결국 돈이죠. 하지만 돈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닙니다. 선행부도 말후태과(先行不到 末後太過)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허상이라면, 먼저 달려 가봐야 허상이나 달지를 못하고 꼴찌로 가다보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크게 지나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달려가는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쓸데없는 문제로 싸우다보면 핵무기 등으로 결국 인류는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외부에 있는 줄 알지만 결국 행복은 자기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찾아야지요.

▲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특별히 계획이랄 건 없어요. 지금 현재 대사의 저서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걸 마무리 짓는 정도죠.

정리: 여수령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이원섭 시인은 192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44년 해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48년 <예술조선>과 <문예>로 등단해 한국문학협회 부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장을 지냈다. 첫 시집 <향미사>(1953)를 펴낸 후 <선사> <당시> <논아>를 비롯해 만해 스님의 <불교대전> 등을 번역하며 불교 경전 공부에 매진했다. 2001년 <내가 밝은 미래>(2001)을 펴내 선기(禪氣) 넘치는 언어의 세계를 펼쳐보였다.

언제 어디서나 불교정보 내손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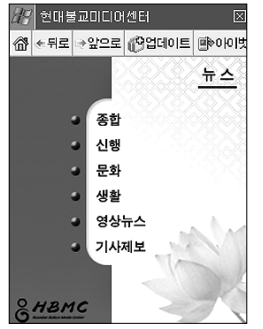
본사 1월 31일 아이넷 불교정보서비스 가동

인터넷이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전용단말기 '아이넷'으로 불교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아이넷 불교정보서비스가 1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아이넷 불교정보서비스는 전용단말기(HP rw6100)를 사용하여 NESPOT AP(Access Point)가 설치된 주변지역에서 무선 랜을 통해 초고속인터넷과 각종 불교문화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NESPOT AP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CDMA망식으로 접속이 가능해 핸드폰이 가능한 지역이면 불교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불교 포교에 획기적인 서비스로 기대된다.



■ 뉴스 =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사가 즉시 업데이트 된다. 특히 동영상으로도 불교계 뉴스를 접할 수 있고 기사 제목 코너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주변의 불교 이야기를 직접 올릴 수 있어 생방송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다.

■ 법문 = 지상백고와,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 코너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특히 동영상으로 전국 제방선원의 방장, 선원장 등 이 시대의 큰스님 법문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 교양대학 =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 강의 코너로 나누어 다양한 무료 강의 영상과 문자로 서비스 된다. 정취학 교수의 불교학 개론, 수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비롯해 불교미술, 다도 등 다양한 강좌를 서비스한다.

■ 사이버 법당 = 불교 예절, 기초교리, 오늘의 법구 등 세 코너로 운영된다. 불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으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청량제가 될 법구를 매일매일 전달한다. 향후 개별 사찰이나 종단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내가 다니는 사찰을 그대로 재현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신생활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엔터테인먼트 = 법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찬불가를 비롯해 창작 찬불가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소개하며 전시 정보, 영화정보 등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서비스한다. 향후 아이넷 전용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구성할 수 있는 스킨 서비스, 핸드폰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 E-Book = 불교 신간도서,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 추천도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서비스한다. 또한 다양한 서적 정보를 제공한다.

■ 커뮤니티 = 아이넷 단말기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소개하는 Q&A, 필수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실을 비롯해 향후 사이버 기자, 문화 지킴이 등 모바일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불교문화화살 = 염주, 차 등 불자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 정보를 제공한다.

아이넷 불교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오픈

아이넷 불교정보서비스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이넷 홈페이지(<http://itubd.buddhapia.com>)를 함께 오픈한다.

아이넷 홈페이지는 서비스 소개를 비롯해 큰스님 영상법문, E-Book 등 불교정보를 유선상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모임, 관련 TIP 등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인모집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시	수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울.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년 2회 학습 수련)
전원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한국 불교 통신대학 · 대학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나란다 삼장불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사미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과정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2005년 3월 10일 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나란다 삼장 불학원

전화 02)969-2410 / 969-4981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